

추 도 사

세주(世主)당 묘엄 명사님!

우리 종단 비구니 스님들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스님께서 이렇게 원적에 드시니 동짓달은 바람이 더욱 차고, 밤은 더욱 길기만 합니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이 모든 세간을 맡은 이[世主]들이 저마다 환희한 마음을 내어, 헤아릴 수 없는 공양거리로 모든 세계해(世界海)를 미묘하게 장엄[妙嚴]하니, 중생들에게 대광명의 빛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법은 이 모든 세간을 장엄하는 수많은 성중(聖衆)들 즉, 세주들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말이니 묘엄스님께서서는 이름 그대로 세간의 주인들을 길러내어, 그들로 하여금 이 세계를 미묘하게 장엄하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묘엄 명사님!

일찍이 청담스님을 인연으로 탁태하심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숙세의 서원이요, 성철스님을 스승으로 수법하심은 의단(疑團)을 일으켜 근본 무명을 타파하기 위함이었으니 어찌 다겁생의 인연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또한 스님의 일생은 비구니 승가를 바로 세우기 위한 원력의 실천이었기에 엄격한 수행자의 표상으로 충분하였음에도, 도심견고(道心堅固)하여 수요견성(須要見性)을 위한 구도행을 멈추지 않았으니, 주석한 곳곳은 명실 공히 승가교육의 요람이 아닐 수 없으며, 오늘날 우리 종문의 수많은 비구니를 길러내신 진정으로 이 세간을 맡으신 분[世主]이며, 수행과 교육으로 불회상을 장엄하신 이 시대의 ‘대애도 고탐미(大愛道 瞿曇彌)’이십니다.

세주당 묘엄 명사님!

80평생 스님께서 얻으신 최고의 영예는 너무도 많지만, 가장 큰 족적은 바로 이 땅에 비구니 승가를 올바르게 세우신 것이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자기를 단속하여 인천의 사표가 되고 생사에 자재하여 중생을 제도하라’고 가르침을 남겨주신 진정 우리들의 사표이며 생사에 자재하셨던 선지식이십니다.

스님께서 떠나시니 스님께서 일구신 이 대가람은 적막하고 가르침으로 빛나던 이곳 광교산(光敎山)은 자연의 빛마저 흔들리며 애상에 잠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력 여의지 않았으니 스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대웅전 앞 800년 향나무는 스님의 향훈을 잊지 않고 기뻐하며 맞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우리 곁에 다시 오셔서 큰 가르침으로 교화하여 주옵소서.

불기2555년 12월 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